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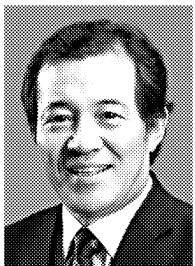
과학기술은 그 원리를 재현함으로써 검증 받는다. 똑같이 해보이지 않으면 진실이 아닌 걸로 간주되고 이러한 재현성이 곧 과학기술의 기본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건이라는 건 도대체 재현이 불가능하다. 시간축을 따라 흘러가는 모든 것의 변화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어제의 것이 오늘과 같지 않고 오늘 것 역시 내일이 되면 변하기 때문이다.

5·18광주민주화쟁 역시 사건중의 하나다. 이 사건의 진실은 도처에 묻혀 있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잊어야 할 회한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다. 역사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결국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냥 아스라한 흔적만을 남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기억은 시간 흐름에 따라 지워지지만 역사의 기록이란 시간이 가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하다. 옳고 그름에 앞서 사건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외부에 적극 보여주는 자세 중요

5·18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 등재란 이 사건이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는 점과 함께 관련 기록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이제 31년 만에 광주 시민은 절반의 환희를 하게 된

전매광장



문정기
광주전남과총무회장

5·18을 마케팅하자

셈이다. 머릿속의 한 칸에 혹은 가슴속 깊은 곳에 묻었던 그 얘기를 내놓고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또한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도민, 우리나라 사람 모두의 중요한 자산이 된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이무용 교수로부터 ‘광주의 5월을 걷다’라는 소책자를 받았다. 잠깐 소개하면 분량 100페이지, 인권/햇불/열정/광장/오월여성/등불/...과 같은 소주제를 세우고 사진과 설명을 곁들인 도보여행안내서다. 이 포켓용 책자는 필자에게 여러가지 메시지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5·18을 마케팅의 대상으로, 광주를 마케팅 장소로 본 것이다. 우리는 그 팀의 제안에 보다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글에 5·18

을 검색해보면 0.15초 내에 자그마치 2억 8,900만 개의 검색결과가 뜬다. 이는 당시 저편의 주인공인 전두환의 50배다. 우리의 좋은 마케팅 자원인 것이다. 누군가가 5·18을 알고 싶다, 보고 싶다, 느끼고 싶다, 기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디에 갈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거개의 사람들은 도청 앞 광장을 떠 올리게 된다. 하지만 올 5·18에 필자가 방문한 도청 앞에는 5·18이 분명히 없었다. 왜 요즈음 유행하는 유튜브나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5·18이 보이지 않는가. 3·1학생운동처럼 막대한 역사적 식 정도를 가진 법한 젊은 학생들이 5·18을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내가 찾는 광주 5·18은 사실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광주

와 5·18이 따로 있는가. 이제는 정신적 아픔과 감정의 맺이라는 골레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동굴 속에서 빠져나와 가슴을 열고 외부와 소통해야 한다.

소중한 기억 새롭게 되살아나길

리영희 선생의 말을 빌려 ‘5·18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훌륭하고 유용한 자원을 더 이상 가둬서는 안 된다. 기록을 찾는 일, 보관유지 하는 일은 물론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기록을 정리하고 누구든지 보기 쉽게 하는 일도 뒤따라야 하고 광주시민 전부가 5·18홍보대사와 5·18해설사가 돼야 하며 관련사적지를 개발하고 이를 코스화해서 누구나 쉽게 방문해 느끼고, 기리도록 해야 한다.

역사기록물은 ‘긍정적 과거의 기록뿐 아니라 부정적 과거에 대한 기록도 잊지 말아야 할 인류의 소중한 기억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결국 광주시민이 당시의 가해자를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과도 상통한다. 이게 바로 5·18의 참뜻이 아니겠는가. 그 뜻과 정신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새롭게 되살아나길 바란다. 오월의 영령들에게 삼가 망복을 빈다.

사설

의혹 쌓여가는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

광주시 하수 오염물질 제거시설인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인사 개입설 와중에 이번엔 시공사 선정 심의에 참여한 일부 공무원이 해촉됐다. 의혹과 관련,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더니 과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광주시는 설계심의분과위원인 기술직 공무원 26명중 7명을 전격 해촉했다. 하지만 이들의 임기는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하다.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심의위원의 비위, 직무능력 결여 등에 한해 해촉토록 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해촉된 것은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해촉된 7명중 4명은 시공사로 선정된 대립산업 컨소시엄에 설계심사 점수 1위를 줬다. 1명은 현대건설에, 나머지 2명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시청내 특정인과 가까운 인사다. 시청 내에서 “뚝박의

업체가 선정됐다”며 대립을 택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가 언급됐다고 한다. 시가 ‘표적 해촉’이라는 조치를 취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시공사 선정에 대한 특정인사의 루머가 이번 해촉과 맞아떨어질 게 아닌가 싶다. 모 인사는 대립산업과 컨소시엄을 이룬 한 지역업체 대표와 친분이 두텁다는 소문, 과거 강운태 시장 선거캠프 인사가 다른 컨소시엄을 맡았다는 소문 등이 그것이다. 1,000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 특정인의 입김에 좌지우지됐다면 이는 결코 평범한 사안이 아니다. 시청에는 세력다툼을 연상케 하는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다. 강시장 결에서 호가 호위하는 인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공사 선정 건이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경찰이 치밀한 조사를 벌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주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장마철 대비 조치 미흡한 영산강사업

4대강 공사가 한창인 영산강이 집중호우시 유실과 붕괴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다. 속도전을 벌벌케 하는 준설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시 쓸려 내려갈 곳이 많고 지천으로 역행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장마철이 임박한데다 이미 지난달 임시 물막이 보 수도로 유실로 인한 피해를 겪은 터라 걱정이 크다. 4대강사업중단 광주·전남 공동행동은 “영산강 사업 현장이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갈 곳이 허다해 강 준설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시민조사단과 함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인데다 이미 이곳저곳서 격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는 터라 설득력이 무게가 실린다. 이들이 주장한 대로라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4대강 사업 추진과 함께 영산강 하천기본계획과 다르게 재시공을 했으며 이로인해 저수호안 대부분이 유실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대형공사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음에도 이에대한 대책이 없는 탓에 우려가 크다. 영산강은 지난달 100mm에도 못미치는 비에 영산강 물막이공사 현장에 매설된 수도관이 휩쓸려 내려가 단수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집중호우가 잦은 장마철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영산강은 그 어느 강보다 지천이 많이 널려 있다. 역류로 인한 홍수 우려가 큰 셈이다. 침식은 비가 내리면 자연적으로 이뤄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인위적으로 공사를 진행, 갑작스럽게 침식이 이뤄진다면 각종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영산강은 대규모 준설에 따른 호안, 제방, 구조물, 지천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게 현실이다. 홍수 피해는 발생한 이후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이라도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한다.

기자수첩

지역기업 노사에 바란다

금호타이어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그동안 파업과 직장폐쇄 그리고 정상가동 이후에도 계속됐던 금호타이어가 극적인 타결을 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또는 ‘제2의 쌍용차 사태’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 모두 공멸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역경제계와 협력업체들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새한철강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지역경제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번 노사협상이 실마리를 찾음으로써 지역경제 회생에도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역 내 대기업 노조들이 최근 입단협을 앞두고 출정식을 갖는 등 올해도 ‘뜨거운 여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유상기업 파업사태로 불거진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를 비롯해 복수노조 관련노조법 제개정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제조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기아차 노사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역시 지난 2010년을 제외한 19년동안 매년 격렬한 파업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지난 2009



김금희
경제부 기자

년에는 사상 유례 없는 최장기간 파업으로 해를 넘겨 2010년 초까지 파업을 진행했으며,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만 기아차 전체적으로 1조를 넘어섰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기아차 노사가 20년만에 파업의 고리를 끊고 무분규를 이뤘지만 올해 하투를 앞두고 기아차 노조가 ‘무분규’를 통해 회사와의 상생을 이어나갈지는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할 경우 지역민들과 협력업체들은 또다시 가슴을 옥죄야 하기 때문이다. 파업은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는 물론 회사와 협력업체들의 매출손실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삼성과 기아 등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파업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이 때문에 엄격한 지역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기침소리에도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기아차 노사가 보다 큰 틀의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독자광장

비상등 켜기 생활화 하자

경감관으로서 가장 많이 듣고, 접한 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인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무단횡단 사망자들을 보면 어린이, 노약자, 주취자 등이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순간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럴 것인데 우리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 또는 뭔가 교통상의 위험 내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그 무언가를 감지하게 될 경우 즉시 비상등을 켜 주위의 차량에게 이를 알려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세상은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생각한다. 남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생각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만 가진다면 지금보다는 한층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비상등 켜기’ 꼭 생활화하자. /광주청 1기동대 노상준

제조계 철저히 관리해야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 사용되는 농약 중 제조제는 어느 농약보다도 그 독성이 강하다. 이 약을 살포할 때 식품의 위에 한 방울이라도 튀면 위에 금새 구멍이 나고 만다. 효과가 이렇다 보니 본래의 사용 목적이 아닌 생활고나 비관 등이 원인이 되어 농민들이 목숨을 끊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면 제조제를 마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고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만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환자들의 증상을 보면 통상 제조제의 액이 닿은 곳은 모두 세포의 파사가 일어나고 심한 경우 근육통이 심해지는데 이런 경우는 1~2일 사이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다른 증상은 폐의 섬유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호흡부전상태를 일으킨다고 한다. 농촌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제조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함평경찰서 김주영

오늘의 운세

48년생 건강에 유념해야 큰 병이 피해진다. 60년생 적은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72년생 갈팡질팡 하다가는 망신을 당한다. 84년생 바쁠수록 여유를 가져야 함.	49년생 출몰 떨고 여행을 다녀오면 마음이 안정됨. 61년생 너무 피곤하지 않게 무리하지 마라. 73년생 과거를 가슴삼아 노려라. 85년생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50년생 한 점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62년생 욕심이 화근이 될 수 있으니 현실에 만족. 74년생 벤처방면에 관심을 가져 보아라. 86년생 엉뚱한 구설수와 시비를 주의하라.
39년생 집안의 경사로 마음이 즐겁다. 51년생 쓸데없는 의심을 갖지 말고 믿을 것. 63년생 빨리 결정하는 것이 득이 된다. 75년생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40년생 금전 거래로 팔지가 아플 수 있다. 52년생 막힌 것이 서서히 풀릴 때이다. 64년생 친구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 하지 마라. 76년생 행운이 따르니 열심히 하면 된다.	41년생 용이 비를 만나 승전하는 날이다. 53년생 본보기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앞장서라. 65년생 옛 친구나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 77년생 열정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면 길하다.
42년생 자손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라. 54년생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하지 마라. 66년생 결정전에 관찰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78년생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43년생 지나간 일의 잘잘못 따질 필요 없다. 55년생 마음에 안 맞아도 적당히 넘어가 줄 것. 67년생 존경하므로 큰 것을 얻는다. 79년생 용기를 가지고 천천히 추진하라.	44년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56년생 금전의 융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8년생 아니다 싶으면 뒤돌아 갈 결단이 필요하다. 80년생 아쉬운 소리가 변명할 일이 생긴다.
45년생 우기지 말고 참는 것이 더 낫다. 5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안전하게 진행할 것. 69년생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 필요하다. 81년생 일이 형통하니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46년생 살았던 오후도 모두 풀어지니 편안해 쯔. 58년생 시름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해진다. 70년생 경마나 경륜 등 노름은 일절 삼가라. 82년생 매일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좋다.	47년생 오랜만에 금전으로 기쁜 소식이 있다. 59년생 소문을 너무 믿지 말고 현실에 충실. 71년생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라. 83년생 참여나 고립 중 하나를 택하라.

유머@세상

■ 누구를 위하여 초인종을

집에 초인종이 고장나서 수리점에 연락을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다시 수리점에 전화를 했다. “왜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저희 직원이 분명히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출발했는데요. 차가 막히나 봅시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요.” 전화를 끊고 기다렸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러도 수리공은 도착하지 않았다. 화가 난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기다리기로 하고 대문을 확 열었다. 그런데 대문 밖에 수리공이 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아빠요.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4시간 전에 도착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 결정적인 이유

섹시너는 오랫동안 사귀던 섹시남과 결혼하기로 했다. 그런데 결혼식을 얼마 앞둔 어느날 섹시남이 말했다. “다른 여자가 생겼어. 우리 헤어지자.” 충격을 받은 섹시녀가 섹시남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나보다 요리를 잘해?” “아니.” “그럼 나보다 예뻐?” “아니.” “그럼 그 여자가 나보다 나은 게 뭐야?” 섹시남은 한참동안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내 아이를 가지고 있대...”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절명상담 133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학대 예방센터 1577-1391
▷ 노인학대 예방센터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39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생활정보전화

▷ 우체국 민원 1300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자원봉사센터 1365
▷ YWCA(여성법률상담소) 527-0011
▷ 인공알고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가정위탁지원센터 351-1206
▷ 수도 고장신고 123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ARS) 360-8114
▷ 철도안내 1544-7788
▷ 대한항공 광주공항 942-0111
▷ 아시아나 광주공항 941-5511
▷ 전곡여객터미널 1544-1114
▷ 전남도청 (061)286-2000
▷ 광주시청 223-3000
▷ 전남대병원 220-6900
▷ 조선대병원 220-3114